

프랑스의 신인감독 지원 정책

Support of CNC for French Young Film Makers

김이석

동의대학교

Kim Yi-Seok

Donggeui Univ.

요약

프랑스는 문화영역에서 강력한 보호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문화적 다양성' 혹은 '문화적 예외'라는 원칙을 내걸고 프랑스는 미국의 '세계화' 정책에 맞서고 있다. 시청각 콘텐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랑스는 헐리우드 영화의 침범에 맞서 자신의 영화적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다양한 지원 가운데서, 특히 우리는 신인감독에 대한 지원체계와 이 체계 안에서 CNC의 역할에 대해 주목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정부기관으로서 CNC가 어떻게 프랑스의 시청각영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살펴보고, 어떤 과정을 통해 신인감독들의 작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Abstract

France is the country who maintains a strong protective policy in her culture area. Under the famous slogan of 'Cultural Diversity' or 'Cultural Exception,' France stands against the globalizing policy of USA. Also in the area of audiovisual contents, France maintains her protective policy in order to protect her cinematic territory against the invasion of Hollywood movies. Among the various supporting systems of French Government, we would like to pay closer attention to the supporting system for young film makers and the role of CNC (Centre National Cinématographique) in this system. So, this article will examine how CNC, as a governmental agency, controls the supporting system in French audiovisual area, and what kinds of process it operates to offer the substantial aid to French young film makers' work.

I. 서론 - 본문 큰제목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문화콘텐츠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는 프랑스는 신인감독에 대해서도 실질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가 신인감독 지원에 있어서 적극적인 이유를 산업적 견지에서 "첫째, 누벨바그 신화의 여파로 인한, 젊고 재능있는 감독을 발굴해 적은 자본을 들이고도 장기적

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작가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전통, 둘째, 제작자가 맨손으로도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자본 편성의 다양한 가능성과 지원이 열려있는 제도적 특수성"1)때문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혹은 파리가 오랫동안 유럽의 문화수도로서 기능하는 동안 서방의 다양한 문화적 결실들을 수용하고 향유하면

1) 영화진흥위원회, "미주 및 유럽의 영화 정책에 관한 연구", p.41,

서 형성된 프랑스인 특유의 문화적 기호(예를 들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선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신인감독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프랑스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프랑스의 신인감독들은 그 혜택을 누리며 새롭게 영화계에 등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의 다양한 신인감독 지원정책 중에서도 특히 국립영화센터 CNC(Centre National Cinematographique)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책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II. 프랑스의 영화지원정책

자국의 영화/영상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보호정책은 크게 방송국을 대상으로 한 쿼터제도와 영화 제작사 및 감독 등에 대한 물적 지원으로 구분된다.

1. 방송쿼터제

프랑스의 방송쿼터제는 다시 지상파 및 유료 케이블 방송국에 대한 '방영쿼터제'와 '제작쿼터제'로 구분된다.

1.1 방송 쿼터제

프랑스의 방송쿼터제도는 지상파 방송을 대상으로 한 1990년 1월 17일 시행령 90-66호, 지상파 유료 채널을 대상으로 한 1995년 5월 9일의 시행령 95-668호를 그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쿼터제도에 따르면, 프랑스의 지상파 방송은 프랑스 자본이 주도적으로 투입된 방영물을 전체 방영물 중 40% 이상 방영해야 한다. 이 비율은 지상파 방송에서 영화를 방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자국의 영화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프랑스의 통상적인 영화 개봉 일인 수요일 저녁시간대를 비롯하여, 주말 (금요일 저녁 - 일요일 20시 30분 전)에는 어떤 영화도 텔레

비전에서 방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영화는 극장상영허가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텔레비전에서 방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유료 채널인 카날 플뤼스Canal+만이 극장 개봉 후 1년이 경과하면 영화를 방영할 수 있다. 하지만 카날 플뤼스는 그로 인해 얻은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프랑스 영화제작에 재투자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1.2 영화 제작 쿼터제

프랑스의 지상파 방송은 총매출액의 15%를 프랑스 자본 주도적 영화를 구매하는 데 할애해야 하며, 유료 채널인 카날 플뤼스와 영화전문 케이블 방송은 매출액의 14% 이상을 프랑스적인 영화 구매에 할애해야 한다. (가입자 수에 따라 이 쿼터는 유동적으로 적용된다.) 이런 제작 쿼터제 실행 이후 공영지상파의 영화투자비는 프랑스 전체 제작비의 30%를 상회하게 된다.²

2. CNC를 통한 지원

방송쿼터제도와 함께 프랑스의 영상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정책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기관이 국립영화센터 CNC다.

1.1 CNC의 역사

프랑스의 국립영화센터 CNC는 2차 대전 직후인 1946년 10월 25일 설립되었다. 이는 나치 지배를 겪으면서 강력한 영화/영상 보호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기 때문이다.³

프랑스의 영화 지원방식은 영화/영상 시장에서 거둔 재원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그 지원주체가 바로 CNC다.

CNC는 행정부의 성격을 가진 공사로 문화부 아래

2) CNC, "La production cinématographique en 2004 ; Bilan statistique agréés du 1er janvier au 31 décembre 2004", 2005.
3) 영화진흥위원회, "영화, 방송, 공적지원", 한빛영상세미나 녹취록, 2001.

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립된 재무구조를 가진 기구이다. 프랑스의 영화지원기금은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로 그 예산액은 2001년 기준으로 약 30억 8천만 프랑(28억 6천 400만 프랑 기금 + 정부보조금 2억 1,700만 프랑으로 한화 기준 약 5600억원)에 달한다.

1.2 CNC의 지원 정책

CNC의 지원정책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뉜다.

- 1) 자동지원: 제작자는 자신이 원하는 경우 자신이 제작한 영화가 발생시킨 CNC 기금의 일정부분을 차기작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기금에는 극장의 입장권세금 및 방송 판권세, 비디오 판권세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창출된 CNC 기금은 CNC 금고에 적립되었다가 제작자가 원할 경우 차기작 제작에 대부 형식으로 자동 지원된다.
- 2) 선별지원: 자동지원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책으로 '아방스 슈르 르세트(Advanced sur recette 예상수익근거 사전대출방식)'라 부른다. 시나리오 및 기획안에 대한 심사를 근거로 한 이 지원책은 이 글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신인감독 지원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원정책이다.

그 외에도 CNC는 3) 합작지원, 4) 단편영화 제작 지원, 5) 애니메이션 특별 지원 등을 통해 프랑스 영화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III. 프랑스의 신인감독 지원 정책

1. 방송쿼터제의 신인감독 지원효과

지상파 및 유료 채널에 부과된 영화제작 쿼터는 재능있는 신인감독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많은 신인감독이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1990년대 들어 방송자본의 도움을 받은 신인감독의 작품 수가 늘어

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90년대 신인감독에 대한 지상파방송지원현황*

	1990	1992	1994	1996	1998
전체편수	26	39	22	37	58
지상파지원작	8	24	15	24	26
CNC 지원	19	19	27	28	24
두번째 작품	21	36	31	27	35
CNC 지원	11	14	11	7	15

2. CNC의 신인감독 지원

신인감독에 대한 CNC의 지원 가운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선별지원이다. 선별 지원 위원회는 4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1 소위원회에서 신인감독의 첫 장편영화 혹은 제작 투자를 받기 위한 데모 영화 제작에 대한 사전지원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제 3 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제작사후지원 심사를 통해서도 신인감독들은 작품에 대한 제작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전지원과 사후지원을 통털어 '아방스 슈르 르세트'라 칭한다.

이와 별도로 CNC는 선별 지원에 선정된 신인감독의 첫 작품을 배급하는 배급업자에게 소정을 심사를 거쳐 1억원 정도의 배급 지원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CNC는 특별지원의 방식으로 신인감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나리오 개작 지원'이 바로 그것으로 사전지원을 받기에는 완성도가 미흡한 시놉시스나 시나리오를 사전지원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제 1 소위원회에 낼 수 있을 정도로 개작하는 작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앞의 자동지원과 선별지원이 일종의 대부형식을 띠고 있는 반면 특별 지원은 상환을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 지원금이라는 점이 차이점이다.⁵ 표 2와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4) 프랑스에서는 넓게는 두 번째 작품을 발표한 감독까지 신인감독의 범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각종 통계에서 감독의 두 번째 작품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는 것은 그런 이유이다. 위 자료는 CSA/CNC, 박지희 역, "프랑스 방송과 영화 Le cinéma à la télévision", 한불영상세미나, 영화진흥위원회 보고서, p.44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5) 윤경진, "프랑스 영화산업 현황과 공공지원 정책", 한불영상세미나 보고서, pp.12-14. 2001.

것처럼 최근 5년간 프랑스 영화계에서 신인감독의 작품은 전체 영화의 30%를 꾸준히 넘어서고 있으며, CNC의 신인감독에 대한 지원 역시 30%이상 꾸준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작품에 대한 지원을 포함할 경우 CNC의 신인감독들에 대한 지원비율은 50%를 훌쩍 뛰어넘게 된다. 특히 2002년과 2003년에는 67편과 68편의 첫 작품이 제작되었는데, 이 수치는 한국의 연간 전체 영화제작편수에 버금가는 수치이다.⁶

[표 2] 최근 5년간 프랑스 영화계의 신인감독 작품⁷

	2000	2001	2002	2003	2004
프랑스자본영화	145	172	163	183	167
첫 번째 영화	53	53	67	68	54
비율(%)	36.5	31	41	37	32
CNC 지원작	19	19	27	28	24
두 번째 영화	21	36	31	27	35
CNC 지원작	11	14	11	7	15

[표 3] 최근 5년간 CNC지원영화 중 신인감독

	2000	2001	2002	2003	2004
전체편수	56	71	62	71	72
데뷔작	19	19	27	28	24
비율(%)	34	27	44	39	33

자동지원과 선별지원이 장편 영화에 대한 지원이라면 '단편영화 제작지원'은 말 그대로 단편영화를 제작하려는 감독과 제작자에 대한 지원정책이다. CNC는 매년 400편 이상의 단편영화에 대해 제작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부터는 5편까지 복수의 단편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⁸ 이런 단편영화지원은 감독지망생들이 자신의 영화적 비전을 드러내고 자신의 재능을 입증시킬 수 있는 기회의 폭을 열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많은 신

인감독들이 제작 기회를 얻는 효과를 낳고 있다.

또한 실사 영화가 아닌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특별 지원을 시행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신인감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첫 작품 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애니메이션 신인 작가나 애니메이션 제작 경험이 없는 신진 제작사가 데모용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고 있다.

종합적으로 프랑스의 신인감독들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신인감독에 대한 직접적 지원

지원주체	지원대상	지원내용
CNC	장편영화	자동지원, 선별지원, 합작지원
	단편영화	단편영화 제작 지원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특별 지원
지상파	장편/단편	직접 투자 혹은 관권구입
SOFICA	장편영화	직접 투자

특히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영상 및 영화산업투자회사체 SOFICA마저도 매년 30% 이상의 비율로 신인감독의 작품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하다.(99년 기준 : 67편 중 29편)

3. 신인감독에 대한 간접적 지원

이상 언급한 내용들이 신인감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라면 앞으로 언급할 내용들은 간접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원효과가 큰 지원정책들이다.

우선 CNC의 '극장홍행 선별 지원 정책'을 들 수 있다. CNC는 매년 소정의 심사를 통해 프랑스 전역의 소극장과 전용관들 가운데 '예술과 시도 Art et Essai'라는 범주에 속하는 극장들을 선정한다. 여기 선정된 극장들은 최소한의 수입을 국가기관으로부터 보장받음으로써 다양한 작품들을 관객들에게 안정적으로 선보일 수 있다. 이처럼 극장에 대한 직접 지원은 다양한 작품에 대한 수요를 유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많은 신인감독들의 영화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6) 한국영화 전체제작편수는 2001년 65편, 2002년 78편, 2003년 80편이었다.

7) CNC, "La production cinématographique en 2004 ; Bilan statistique agréés du 1er janvier au 31 décembre 2004", p.30, 2005.

8) 윤경진, ibid, p.16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극장지원정책 덕분에 파리의 극장가에는 1주일에 300편에 가까운 영화가 상영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교육기관을 통한 지원을 꼽을 수 있다. 프랑스에는 대학 영화학과와는 별도로 페미스 FEMIS, 국립 루미에르 학교와 같은 영화관련 그랑제콜이 설립되어 있다. 재정난을 안고 있는 국립대학 영화학과들이 낙후된 시설로 인해 고심하고 있는 반면, 그랑제콜은 우수한 교육시설과 강사진을 확보함으로써 프랑스의 영화 엘리트를 양성하고 있다. 그랑제콜 출신의 영화학도들은 우수한 교육환경의 혜택 뿐만 아니라 그랑제콜 출신이라는 후광까지 얻음으로써 졸업 후에도 차별화된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랑제콜에 대한 프랑스의 국가적 지원은 아르노 데플레생, 세테릭 칸 등 90년대 이후 등장한 문제적 신인 감독들로 인해 그 결실을 거두게 된다.

4. 신인감독 지원 제도의 의미

이상과 같은 프랑스의 신인감독 지원정책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1. 재능있는 감독이 시장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신인감독이 안정감을 가지고 문화적, 예술적 작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준다.
3. 신인감독과 일하게 된 영화 제작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4. 다양성을 보장함으로써 문화콘텐츠의 잠재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강국으로서 프랑스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한다.

하지만 이런 지원에 부정적인 측면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선 상업적인 방송자본이 문화/예술 분야에 유입됨으로 인해 영화가 급격히 상업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정책적인 지원이 풍부한 탓에 시장의 기능이 둔화되어 산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경쟁력이 약해지는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

또한 그랑제콜 출신 같은 특정 세력이 혜택을 독점함으로써 일종의 문화권력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점 등이 그러하다. 실제로 다양한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영화가 누벨바그 시대와 같은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국제 무대에서 고립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기도 하다.⁹

IV. 한국의 영화정책

1.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정책

영화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영화콘텐츠의 활용가능성과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산업적 측면 외에도 공공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영상콘텐츠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과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획기적인 정책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¹⁰ 현재로서는 스크린쿼터제도 이외에는 마땅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신인감독에 대한 우리 영화계의 지원도 미비한 상태다. 현실적으로는 신인감독군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도 제시되고 있지 않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원금액의 규모 등이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비교적 지원규모가 큰 예술영화 지원의 경우도 프랑스의 경우와 비교하면 지원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지원편수가 현저하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4억원이라는 예산은 저예산 예술영화의 경우 상당한 규모임에 틀림 없지만, 한 해에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포함 다섯 편의 영화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지원정책이 문화적, 산업적 측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

9) René Predal, *Les Jeunes cinémas français*, Nathan, 2003.

10) "영화 콘텐츠의 문화/산업적 활용을 위한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보고서, pp.32-80, 2001.5.

[표 4] 영화진흥위원회 주요 진흥정책¹¹⁾

구 분	총예산 (단위:원)	지원편수	편당 지원금
대학창작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1억	10편 이상	최대 1천만원 (차등지원)
독립영화 제작지원	2억	10편 이상	최대 2천만원 이내 (총제작비 50%이내)
예술영화 제작지원	20억	5편 (애니 1편)	최대 4억원 (순제작비 50%이내)
극영화개발비지원	1억5천만	10편	1천 5백만원

게다가 국내의 지원정책의 혜택이 대부분 명망있는 감독들을 중심으로 이뤄짐으로 인해 신인감독들이 지원을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부산영화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전영화시장 PPP(Pusan Promotion Plan)의 경우를 살펴보자. PPP는 지난 2001년 NDIF(New Directors in Focus)를 신설하면서 해마다 한국의 신인 감독 5명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이 프로젝트 선정작 중 실제 제작이 이루어진 작품은 2001년 선정작 김성호 감독의 '거울 속으로'(시네마 서비스 투자), 2003년 프로젝트 '러브 하우스', 2004년 프로젝트 '내 청춘에게 고함'(2005년 크랭크인 예정)으로 기대만큼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상금규모를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LJ필름'이라는 제작사가 직접 프로젝트 선정작의 영화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물론 한국영화 평균 제작비가 30억에 달하는 지금, 2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상징적인 액수일 뿐으로, 프로젝트 선정작이 영화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비를 넘겨야만 할 것이다. 이처럼 국내의 신인감독 지원제도는 그 필요성에 비해 아직은 상징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단계다. 물론 국내 영화 제작편수가 프랑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내의 신인감독에 대해 프랑스와 같은 수준의 지원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표 3] 연간 한국영화제작편수 및 프랑스영화제작편수¹²⁾

구 분	한국영화 제작편수	프랑스자본주도 영화제작편수
1994	65	89
1995	64	97
1996	65	104
1997	59	125
1998	43	148
1999	49	150
2000	59	145
2001	65	172
2002	78	163
2003	80	18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 영화학과 설립현황과, 총무로 주변의 감독후보생들의 숫자를 생각하면 신인감독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V. 결론

CNC에서 발간하는 각종 통계들을 살펴보면 프랑스가 신인감독에 대해 유난히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제작자들 역시 신인감독을 기용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제작자의 적극성만 놓고 보면 국내 제작자들도 프랑스 제작자에 비해 그리 뒤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국내의 경우 제작환경의 특성상 신인감독에게도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 신인감독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도태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신인감독의 능력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한 탓에 제작자나 투자자 역시 상당히 큰 위험부담을 떠안게 되는 실정이기도 하다.

신인감독의 존재를 단기간의 가시적 성과보다는 미

12) <http://www.kofic.or.kr/contents/board>, 2004년 한국영화연감 통계.

* 한국영화 제작편수는 영등위 심의기준 장편영화.

* 프랑스영화 제작편수는 CNC 통계자료 인용

11) <http://www.kofic.or.kr/contents/board>

래를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그들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지 않고서는 영상콘텐츠 강국이라는 원대한 프로젝트의 실현은 쉽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 [1] Adriano APRA, "Le cinéma coréen", Centre George Pompidou, 1993.
- [2] René PREDAL, "Les Jeunes cinémas français", Nathan, 2003.
- [3] 아이엠픽처스, "2004년 영화시장 분석", 2004.
- [4] 영화진흥위원회, "영화 콘텐츠의 문화/산업적 활용을 위한 연구", 2001.
- [5] 영화진흥위원회, "영화, 방송, 공적지원", 한불영상세미나 녹취록, 2001.
- [6] 영화진흥위원회, "미주 및 유럽의 영화 정책에 관한 연구", 2000.
- [7] 윤경진, "프랑스 영화산업 현황과 공공지원 정책", 한불영상세미나 보고서, 영화진흥위원회, 2001.
- [8] CNC, "La production cinématographique en 2004 ; Bilan statistique agréés du 1er janvier au 31 décembre 2004", 2005.
- [9] CNC, "La production audiovisuelle aidée en 2004", 2005.
- [10] CNC, "Eléments d'analyse de l'emploi dans l'audiovisuel", 1999.